

# 다문화 패밀리센터 추진

## 광주시, 국제결혼 가정 적극 지원 5만여㎡ 부지에 2012년까지 건립

국제결혼 증가로 급증하는 다문화(多文化) 가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다문화 패밀리센터' 건립이 추진된다.

광주시는 29일 "다문화 패밀리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과제 심의회의를 열고 오는 2012년까지 센터를 건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 부지 5만여㎡, 전체면적 2만6천여㎡로 건립되며 국비 1천64억 원이 투입된다.

센터 내에는 이주여성에 대한 법률·의료지원·전용상담 등을 갖춘 종합지원관을 비롯해 ▲다문화 체험장

▲국제결혼 남성교육관 ▲언어소통관 ▲생활정보관 ▲여가시설 등이 들어선다. 또 부부사랑관·탈북자관·아시아관·유럽관 등 다문화 체험장과 국제결혼 남성에 대한 언어·문화교육 등을 맡을 남성교육관도 건립된다.

국제결혼 증가 등으로 다문화 가정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주여성 센터 등 단편적인 지원시설은 있지만 근본적인 지원 인프라시설 구축은 이 센터가 처음이다.

광주시는 올 초 여성가족부에 센터 건립 계획을 건의하고 다문화 가족지원 민·관 전문가 협의회 등을 거친 뒤

추진 세부 계획을 잡았다. 시는 센터가 건립되면 다문화 가족 교육연수와 문화체험 등 연인원 30여만 명이 찾고 고국을 그리워 하는 외국인들의 향수를 달랠 다문화 체험 공간에도 10만여 명의 외국인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영어와 서반어, 중국어 등 다국적 언어 원어민 강좌 설치와 다국적 인력 DB구축으로 외국 인적자원 활용 등 부대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를 위해 전국 이주여성 부부와 자녀의 합숙교육과 연수, 국제결혼과 탈북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지역은 이주여성 3천여 명을 비롯, 외국인 1만1천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국제결혼 여성은 10만 명이 넘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2007 농성 뚝자리축제

지난 28일 광주시 서구 농성광장에서 열린 '2007 농성 뚝자리축제'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목공예(木工藝) 체험을 하고 있다. 서구청 '농성문화의집' 주최로 열린 이번 축제는 '뚝자리에 둘러앉아 공연을 즐기면서 이웃 간의 벽을 허물자'는 취지로 기획됐으며 오는 10월까지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농성광장에서 열린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더운 바람·소음 '짜증' 폭염 속 에어컨 실외기 민원 급증

### 강제이행부담금 전무

무더위 속에 에어컨 등 냉방기기의 실외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더운 바람과 소음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29일 광주시 서구청 등 5개 구청에 따르면 낮 최고기온이 35도까지 오를 최근 냉방기기 실외기와 관련된 민원이 10여 건 이상 접수되는 등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잇따르고 있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 J아파트에 살고 있는 이모(여·44)씨는 인근 활인 집에서 들려오는 대형 냉방고 실외기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씨는 "24시간 가동되는 냉방고 소음은 물론이고 인도를 향해 내뿜는 40도가 넘는 더운 바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실외기의 이동 및 소음

개 설치를 요청했다.

북구 용봉동 전담대 후문 상가 주민 10여 명도 "인근 건물 벽면에 다닥다닥 붙은 실외기에서 밤새도록 들리는 소리로 인해 두통이 생길 지경이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에어컨 실외기는 지난 2002년 개정된 건축법에 따라 땅에서 2m 이상 높이에 두거나 배기구에서 나오는 열기가 보행자에게 닿지 않도록 차단막을 설치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5개 자치구는 지난 2005년 일제정비를 통해 현황파악과 계도 활동을 한 것 이외에 이를 어진 업소의 이행강제금(200만원 이하) 부과는 단 한차례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현주기자 ahj@kwangju.co.kr

## 여름방학 청소년 '로봇' 무료교육

### 김대중컨벤션센터

여름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에게 '로봇' 무료교육이 실시된다. 김대중컨벤션센터는 오는 8월 26일까지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로봇 무료 특강을 실시한다.

로봇 무료 특강은 평일에는 오전 11시와 오후 3시 두 차례, 주말에는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4시 3차례에 걸쳐 실시된다.

로봇무료특강은 30일부터 8월 5일까지 전자회로 설정 이론을 공부한 뒤, '강아지 로봇'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다. 8월6일~8월12일엔 미로찾기 로봇인 '어보이더 만들기'를 체험할 수 있다.

또 8월13일~8월19일엔 직·병렬 연결 설명을 들은 뒤 '라인트레이서'를 만들고, 8월20일~8월26일에는 '강아지 로봇'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게 된다.

교재와 교구는 무료로 전시회 현장에서 제공한다.

문의 062-611-3600, (사)전국 edu-robot.org,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동림2지구내 학교설립 취소 부지 임시 주차장으로 바뀐다

학교 설립이 취소된 부지가 주차장으로 바뀐다. 광주시는 29일 "동림2 택지개발지구 내 학교설립 취소 부지에 임시주차시설을 설치해 인근 시민들의 편의와 불법주차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림2 택지개발지구는 지난 1997년 7월22일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지구 지정이 확정돼 올 3월30일 택지개발사업의 준공 후, 현재 아파트 신축공사 등 택지조성을 위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단지 내 학교부지는 교육청과 협의해 당초 5개교(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2개교)로 계획했으나 최근 학생수 감소 등으로 인해 교육청에서 3개교(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1개교)로 학교설립 계획을 축소된 상태다.

택지개발 조성사업의 공공시설용지는 2년이 지난 후 용도변경이 가능하므로 오는 2009년까지 학교설립 취소 부지 2개소는 유휴토지로 남게 된다.

이에 따라 시는 택지개발 조성기간인 대한주택공사와 주변 아파트 사업 시행자들의 협조를 받아 유휴토지로 관리되고 있는 학교설립취소 부지 2곳(2만1천여㎡)에 임시 주차시설을 조성한 뒤, 공사 차량과 아파트단지 이용자들의 주차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동림2 지구의 주차시설 허용도와 성과를 평가한 뒤, 진월 진월택지개발지구와 수완택지개발지구의 학교설립취소 부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활용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학교설립이 취소돼 2년 동안 공터로 방치되면 쓰레기가 합부로 버려지거나 풀이 자라나 도심 속 흉물이 될 수 있다"며 "주차장으로 사용하면 미관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사차량이나 인근 주민의 주차에도 도움이 돼 도로변 불법 주차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된장·간장 포장

광주시 남구 압촌동 '광주 콩 종합센터' 직원들이 여름철 뜨거운 햇살에 숙성된 된장·간장을 정성스레 포장하고 있다. 이 된장·간장은 지난 2월 콩센터 개소식 때 '전통 장 담그기' 행사에 참여한 386명의 시민에게 배달된다.

/위직환기자 jrwi@kwangju.co.kr

## 서창 만드리 풍년제

### 서구 세하동서 열려

풍년을 기원하는 광주시 서구청 '제9회 서창 만드리 풍년제'가 30일 서구 세하동 세하마을 들녘에서 열린다.

이번 풍년제에는 서창농협·상무1동·치평동 풍물팀과 광산농악팀이 마을 어귀를 돌며 흥을 돋우는

식전행사에 이어 풍년기원제·만드리 재현·전통한마당 등 순으로 진행된다.

행사장에는 농산물 직거래 장터·도자기 만들기 체험·환경사진전 등도 마련된다.

'만드리'는 논의 마지막 김매기인 '만도리'(맨 나중 자란 잡초를 없애는 것)에서 유래한 말로, 세 벌 김매기를 하는 백중(百中·음력 7월15일)에 불렀던 농요다.

/인현주기자 ahj@kwangju.co.kr

## 저수지 출입 사고 주민·낙시꾼 분쟁

### 쓰레기·약취·진입 막아

광주시 북구 석곡동 주민 40여 명은 최근 장동(5천㎡)·장동(3만㎡)저수지에 낙시꾼들의 출입을 막아달라는 민원을 북구청에 제기했다.

주민들은 진정서에서 "휴가철에 되면서 저수지를 찾는 낙시꾼들이 각종 쓰레기를 합부로 버리는 바람에 악취가 심하게 나 주민불편이 크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이에 앞서 지난 3일부터 저수지 입구에 길이 4m의 쇠사슬을 쳐놓고 외부 차량의 진입을 막고 있다.

이에 대해 낙시꾼 등은 지난 27일 '잠금 장치를 풀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 주민들과의 갈등을 빚고 있다.

북구청 관계자는 "저수지 입구에 CCTV를 설치하는 등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며 "조만간 주무 부서와 협의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현기자 golee@

### (株) 행복출판은

한국에서 10년째만 소개 해오던  
일본으로 부터 영웅 서한 공개  
이제는 국내 독자 계층 확대를 목적으로  
최고 가격대 책들을 저렴하고 있으며  
가장 많은 독자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국내 대표 출판사로서  
최우수 1위 한국대표 출판사로서

최대권 기업에너지 경영 모임

(株) 행복출판 (062) 527-3388

www.hanbitpub.co.kr ☎ 공무원학원 검색 1위

2007년 국가직 지방직 시험 수험생 합격자 비율은 수험생이 푸는 학원 한빛이 합격합니다

# 7급 공무원 개강 8월 1일

국가직 지방직 시험 접수중

- 7급 공무원 특수반 첫집단
- 전남지방·교정문제풀이
- 합격률 3000여명

전국 표강교수진은 한빛에 있다

## 한빛공무원학원

한빛은 공무원

지역별 : 서울(02)341-1111 | 부산(051)241-1111 | 대구(053)241-1111 | 대전(042)241-1111 | 광주(062)241-1111